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소독 등 차단방역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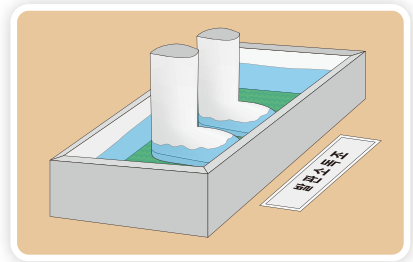
- 농장입구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및 통제
- 농장 내·외부 등 소독 철저
- 축사 출입시 반드시 외부 신발을 벗고 **축사 전용신발**로 갈아 신은 후 소독 실시
(축사별로 장화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축사 입구 전실에는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여 소독액은 2~3일에 한번씩 교체하고 유기물 오염 시 즉시 교체
- 축사 내·외부, 장비, 농장 출입구 등에 대해 철저히 소독 및 **소독실시 기록부에 기록 보관**
- 축산차량이 농장에 진입한 경우 차량의 동선 및 통행로 등을 세척·소독
- 야생동물이 축사내부로 출입하지 않도록 그물망 및 울타리 설치
- 축사 주변의 야생조류 분변을 관찰하고, 발견 시 수거, 소독 실시



| 농장입구 출입차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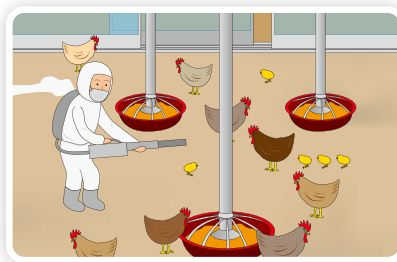
| 출입차량·사람소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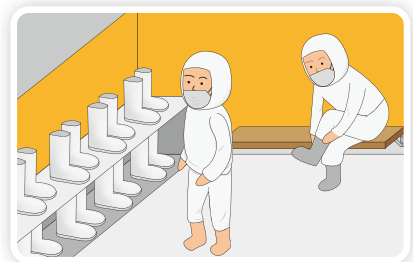
| 축사별 발판소독조와 전용장화 |



| 사료빈 주변 주기적 청소 및 소독 |



| 축사 내·외부, 장비 소독 |



| 축사 전실 설치 |

닭·오리 등 가축에서 평소보다 폐사율증가, 산란율 저하 및 임상증상발현 등 의심축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
주요
임상증상

폐사, 줄거나 침울, 벼슬이나 다리 청색증, 안면부 종창, 흰색 또는 녹색 설사, 신경증상 등

- ✓ 동일 축사에서 **폐사율**이 이전 일주일 일평균보다 **2배 높은 경우**
- ✓ 동일 축사에서 **산란율**이 이전 일주일 일평균보다 **3% 이상 낮은 경우**

☎ 1588-9060(농림축산검역본부)

☎ 1588-4060(지자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세척·소독 실시 요령

1
단계

청소

축사 내 먼지, 흙, 유기물을 제거

2
단계

세척

고압세척기 등으로 천장 ▶ 벽면 ▶ 케이지 ▶ 바닥 순

발판소독조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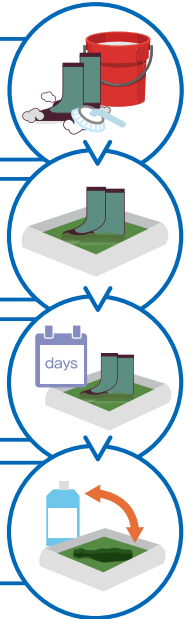
- 발판 소독조는 운영이 미흡할 경우 **질병전파 매개체**가 될수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
- 유기물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산화제계열, 알데하이드계열** 권장

발판소독조 옆에 세척소독조(장화에 끼인 유기물을 털 수 있는 세척솔과 물을 채운 통)를 두어 장화의 유기물을 제거한 다음 소독조에 장화를 담군다.

발판소독조는 장화가 들어갈 수 있는 폭에 높이가 높은 통을 선택하여 장화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한다.

자체 발판소독조 운영 지침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발판소독조의 소독제를 교체한다.

발판소독조의 사용이 많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소독제의 효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소독제를 교체한다.



소독제는 화학적 특성이 다른 계열의 소독제 섞어서 사용 금지!

-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적정 희석배수 및 소독약 용법·용량 반드시 확인
- 겨울철은 미지근한 물로 희석 사용 : 저온 (4℃)에서는 소독제 효력 저하

라벨 설명서에 따르면 유기물의 정도에 따른 소독대상은 물 2톤에 1kg 한봉지를 희석하면 1/2000, 물 200리터에 1kg 한봉지를 희석하면 1/200

생석회(CaO) 사용요령

■ 농장입구 및 이동로 생석회 도포

1. 생석회(CaO, 과립형) 소독효과

- 물을 뿌린후 생석회를 살포하면 1차적으로 **물과 생석회가 열반응(200℃)**을 일으켜 병원체를 사멸
- 열반응 일어난후 **소석회로 변해** 강알칼리(pH11~12) 작용을 통해 **소독효과가 있고, 쥐 등 야생동물 차단효과**

2. 생석회는 알칼리성, 그 위에 산성소독약 사용 금지

3. 농장 진입로 등 **땅바닥에만** 사용

4. 최소 **일주일 간격**으로 생석회 살포(비,눈 이후 재살포)

5. 바람이 불 때는 **눈, 피부**에 접촉되어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보호장구 착용 등**)

■ 살포기준

- 살포량 : 1m² 당 300~400g(두께는 지면으로부터 약 2cm)
- 살포폭 : 약 2~3m(농장 진입로는 최소 차량 바퀴 1회전 이상의 폭)